

취업주부의 부부 역할수행 · 가정생활 기여도 및 만족도

(숙명여대 교수) 이정우
(숙명여대 강사) 장병옥

I. 서 론

오늘날 산업의 발달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 남녀평등에 따른 여성의 가치관의 변화와 능력의 향상, 핵가족화와 출산율의 저하등으로 가사노동 시간은 단축되는 반면에 여성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현대 가정의 역할은 부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부간에는 역할을 공유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및 평등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내 역할은 대부분 주부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가족원이나 남편의 가사참여율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 이에 따라 취업주부는 가정과 직장생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이중 역할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취업주부는 가족의 목표달성과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함은 물론이고 취업에 따른 소득은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밖에도 가사노동 및 부모·자녀관계 등의 가정생활 전반의 기여는 주부의 개인적, 가족적 지원의 상태 및 심리적 보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 이로 인하여 가정생활의 만족과 행복감의 증진을 가져오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취업주부 가정내 부부의 역할수행은 어떠하며,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기여도와 그에 따른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시간제약 및 역할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최규련, 1988; 두경자, 1990; 이연숙 외 3인, 1991; 임혜경,

1993; 홍성희, 1993; Hirsch & Rapkin, 1986; Brian, 1991), 또한 주부의 가정생활 기여도에 관한 연구로는 취업주부의 소득에 따른 지출과 관련된 경제적 기여도와 직업지위가 낮은 취업주부의 가계소득 기여에 관한 연구 등을 찾아 볼수 있었으나 (유가효, 1992; 김시월, 1993; 김혜연, 1994; Vickery, 1979; Meadows, 1991), 취업주부의 부부역할수행이나 가정생활 기여도 및 만족도에 관련 지은 총체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주부의 부부 역할수행과 가정생활 기여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즉 사회구조의 변화와 취업주부의 증가로 인해 부부의 역할공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주부가 인지하고 있는 가정내의 부부 역할수행이 실제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또 가정생활 기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취업주부의 가정 및 직장생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가정생활 만족도를 향상, 증진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부 역할수행

일반적으로 역할이란 어떠한 지위에 있는 각 개인에게 맡겨진 행위규범으로서, 개인이 어떤 지위를 차지할 때 그 지위에 주어지는 행동기준이나 권리, 의무관계를 나타내며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행동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유영주, 1982), 이때 어떤 집단성원이 그 집단내에서 차지하는 역할행동은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오늘날 부부의 역할 및 자녀양육등 제반 가정생활에 구조적 변동을 요구하고 있는바, 취업주부 가정의 부부는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폭넓은 역할수행을 하여야 하며 새로운 환경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내의 역할분담에 부부의 명확한 한계를 없애고 상호간의 역할변화에 따라 자신의 역할수행을 조정해야만 한다.

Epstein의 연구에서는 가정내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은 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손상을 가져오지만, 부부 상호간의 역할공유는 취업주부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역할긴장을 감

소시켜주고, 특히 남편의 가정내 역할분담은 가정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므로서 부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현저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정숙(1990)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직업인으로서 생활을 서로 공유하고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공동 수행하게 됨에따라 부부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욱 애정적인 관계로 변화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개인은 여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에따른 자아존중감 또는 인정과 같은 보상을 얻게된다는 역할확장 이론에 입각하여 취업주부는 가정과 직장에서 오는 역할과종과 심리적 부담감을 취업을 통해 경감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2. 가정생활 기여도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기여도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으나, 가사노동과 관련된 기여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은 그 노동을 통하여 가정의 기능이 수행되고,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행하므로써 가족원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제공하며 사회안정과 복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사회적차원의 가치가 있으며(조윤경, 1988), 가족 구성원의 욕구충족 및 노동력의 재생산을 통하여 소득을 획득한다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가정소득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문숙재, 1991).

자아 및 자녀에 대한 기여도는 취업주부 자신 및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및 친밀성 또는 애착에 관한 것으로 개인 및 가족지원에 따라 주부의 주관적인 기여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정우 · 장병옥(1997)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가족간의 이해와 협조를 얻으므로써 심리적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기여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관리적 기여도는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역할갈등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과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취업주부의 역할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취업주부의 권력에 따른 가정내 의사결정 정도와 취업주부의 자원 및 능력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부부간 문제해결에는 부인이 남편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hompson & Walker, 1991), 즉 부인들이 가정생활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 자세를 갖는 경향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최혜경 · 노지영, 1994)

가정생활에 대한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는 주부의 취업에 의해 가정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은 직업의 종류나 임금 노동시간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가정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Pritchard, 1990). 또한 주부의 취업소득은 물적 자원으로서 가족원의 욕구를 용이하게 충족시켜 주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임혜경, 1993).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는 주부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가계의 중요한 의사결정자가 되어 가계의 효용 극대화에 기여하게 되며, 이러한 경제적 기여도는 주부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주부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경제적 기여도를 높인다고 하였으며, 자아실현 및 성취에 가치를 부여할 때 경제적 기여도가 더 증가한다고 하였다(김선영, 1985).

한편 부부 중심인 현대가족에서 부부의 동료감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Andrew (1990)의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간에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직업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Sekaran(1986)은 맞벌이 가정의 대다수는 양 배우자를 서로가 일치되는 반려자로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동반자적 기여도는 부부의 쾌포형성으로 신뢰감을 증진시키고 서로의 지위를 확인하고 격려해주는 심리적 기여정도로서 의사소통을 통하여 부부가 서로 정보를 제공하며 부부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한다.

3. 가정생활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이란 가정생활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간의 일치에서 느끼는 충족감과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느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취업주부의 역할수행과 가정생활에의 기여감과 관련된 가정생활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 주부들이 가정관리에 대해 어느 정도 성취감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 곧 가정생활 만족 정도와 연결된다고 하였으며(이정우, 1980),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취업주부 자신의 역할수행 및 배우자의 역할수행의 평가가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urr, 1979).

Rollins와 Galligan(1978)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정생활 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취업주부는 직업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심

리적 보상이 개인적 자아존중감을 상승시켜 생활 만족도를 높여 준다고 하였다. (Umber-
son & Gove, 1989).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부부 역할수행, 가정생활 기여도 및 만족도와의 관련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취업주부의 부부 역할수행 및 가정생활 기여도와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취업주부의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직업관련 변인)이
부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취업주부의 배경변인 및 부부 역할수행이 가정생활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취업주부의 배경변인, 부부 역할수행, 가정생활 기여도가 가정생활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취업주부의 배경변인, 부부 역할수행, 가정생활 기여도 및 가정생활 만족
도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1명이상의 자녀를 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1996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
여 본조사를 하였다. 질문지는 연령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지 전역(강남, 강북,
강동, 강서)에 총 900부를 배부하여 878부가 회수되었으나 부실기재와 무자녀인 질문지를
제외한 총 684부가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을 확인
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계

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네째,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배경변인이 부부 역할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배경변인 및 부부 역할수행이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배경변인 부부 역할수행 및 가정생활 기여도가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배경변인, 부부 역할수행,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기여도 및 가정생활 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¹⁾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취업주부의 부부 역할수행, 가정생활 기여도 및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2. 취업주부의 부부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취업주부의 배경변인이 부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바 <표2-1>에서 살펴보듯이, 전체적으로 취업주부의 의사소통도 ($\beta = .53$), 가족원의 지지도 ($\beta = .25$)가 남편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의 의사소통도과 부인의 취업에 대한 가족원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남편이 역할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 하였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배우자 역할영역에서는 의사소통도 ($\beta = .56$), 가족원의 지지도 ($\beta = .25$) 등이 분산의 51%를 설명하고 있으며, 부모 역할영역에서는 의사소통도 ($\beta = .37$), 가족원의 지지도 ($\beta = .17$), 취업동기 ($\beta = .13$)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부인의 취업에 대한 가족원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남편이 배우자 역할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외적인 동기로 주부가 취업을 하였을 때 남편이 부모 역할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위 역할영역에서는 취업주부의 교육수준 ($\beta = .16$), 의사소통도 ($\beta = .47$), 가족원의

1) 본문에서는 연구결과와 관련된 표, 그림을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발표 당일 OHP로 제시할 것임.

지지도 ($\beta = .16$) 가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역할영역에서는 취업주부의 직업유형 ($\beta = .17$) 과 성역할태도 ($\beta = .11$), 의사소통도 ($\beta = .21$), 자원적정 인지도 ($\beta = .13$), 부인 자신의 취업태도 ($\beta = -.15$)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주부들이 가정지향적이고 전통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남편이 대외적인 역할, 즉 가계부양자의 경제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며 또 취업주부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남편의 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향이 많으므로 남편의 경제 역할수행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취업주부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역할태도 ($\beta = -.12$), 의사소통도 ($\beta = .35$), 자원적정 인지도 ($\beta = .13$), 가족원의 지지도 ($\beta = .15$) 등으로 나타났다. 즉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며 부부의 의사소통도와 자원적정 인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인의 취업에 대한 가족원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취업주부는 가정내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역할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의사소통도 ($\beta = .49$), 자원적정 인지도 ($\beta = .11$), 가족원의 지지도 ($\beta = .15$), 주부 자신의 취업태도 ($\beta = -.11$)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산의 43%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가족원간의 많은 대화,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등으로 심리적 보상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취업주부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유지하려는 역할수행을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부모 역할영역에서는 취업주부의 직업유형 ($\beta = .19$) 만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는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모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특히 직업지위가 낮은 취업주부보다 전문관리직의 취업주부일 때 부모 역할수행을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주부의 경우 자녀교육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업지위가 높은 취업주부일수록 자녀교육에 남편의 협조 및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므로 부모 역할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며느리 역할영역에서는 성역할태도 ($\beta = -.14$), 의사소통도 ($\beta = .18$), 가족원의 지지도 ($\beta = .13$), 자원적정 인지도 ($\beta = .10$), 부인 자신의 취업태도 ($\beta = -.10$)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산의 16%를 설명하고 있다. 즉 취업주부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며 의사소통도와 자원적정 인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취업에 대해 비호의적일 때 며느리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역할영역에서는 의사소통도 ($\beta = .30$), 자원적정 인지도 ($\beta = .10$), 취업주부 자신의

취업태도 ($\beta = -.11$)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역할영역에서는 취업주부의 연령 ($\beta = .17$), 성역할태도 ($\beta = -.10$), 의사소통도 ($\beta = .15$), 자원적정 인지도 ($\beta = .21$), 주부 자신의 취업태도 ($\beta = .13$)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연령이 많으며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이고 취업에 대해 호의적일 때 경제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취업주부는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의사소통도와 자원적정 인지도가 높을수록, 또 부인의 취업에 대한 가족원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가정내 역할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취업주부의 배경변인과 부부 역할수행이 가정생활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표3>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정생활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취업주부의 직업유형 ($\beta = .14$), 성역할태도 ($\beta = .13$), 취업에 대한 남편 및 자신의 취업태도 ($\beta = .11$, $\beta = .10$), 직업만족도 ($\beta = .09$), 남편의 배우자 역할 ($\beta = -.15$), 부인의 배우자 역할 ($\beta = .17$), 부모역할 ($\beta = .19$), 가사역할 ($\beta = .12$), 경제역할 ($\beta = .21$) 등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직업이 생산노무직에 비해 전문관리직일 때 가정생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또한 남편의 배우자 역할수행이 낮고 부인 자신의 배우자 역할수행과 부모역할, 가사역할, 경제역할 수행등이 높게 이루어질 때 가정생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실제로 남편의 역할 수행정도가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취업주부의 역할분담이 많아지므로 가정생활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기여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취업주부의 직업유형 ($\beta = .20$), 성역할태도 ($\beta = .12$), 남편의 배우자역할 ($\beta = -.17$) 및 경제역할 ($\beta = -.12$)과 부인의 가사역할 ($\beta = .14$)과 경제역할 ($\beta = .22$)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주부의 직업지위가 높고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비교적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편의 배우자의 역할수행과 경제역할수행이 낮을수록, 또 부인의 가사 역할과 경제 역할수행을 잘 할수록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취업주부들은 가정내 역할수행과 가사노동에 참여하는데에

많은 시간 제약을 받고 있는데 특히 취업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취업지위가 낮은 취업주부 보다 인적자원과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 기여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더불어 가정내 가사역할수행을 남편보다 주로 부인의 책임부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따른 가사노동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자아·자녀관계 기여도에는 주부 자신의 취업태도 ($\beta = .19$), 가족원의 지지도 ($\beta = .21$), 직업만족도 ($\beta = .13$), 남편 및 부인의 가사역할 ($\beta = -.15, \beta = .10$)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전체 분산의 36%를 설명하였다.

이는 부인 자신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취업태도를 가지며 직장생활을 통하여 자아발전이라는 심리적인 보상을 받기 때문이며,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애착을 높히려는 부모 역할수행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자아·자녀관계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관리적 기여도는 취업주부의 성역할태도 ($\beta = .13$), 의사소통도 ($\beta = .16$) 등이 영향을 미치고 또 부부의 역할수행 영역에서는 남편의 배우자 역할 ($\beta = -.16$), 사위 역할 ($\beta = -.13$), 부인의 부모역할 ($\beta = .31$), 며느리 역할 ($\beta = .11$), 경제 역할 ($\beta = .14$)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갈등을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해주고 부부관계를 재정립 해주기 때문이며, 또 남편이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서의 역할수행이 낮게 인지되므로 상대적으로 취업주부는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바람직한 가정관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 하므로써 그 기여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적 기여도는 취업주부의 교육수준 ($\beta = -.16$), 소득 ($\beta = -.14$), 성역할태도 ($\beta = .09$), 자원적정 인지도 ($\beta = -.24$) 와 남편 및 부인 자신의 취업태도 ($\beta = .19, \beta = .19$), 가족원의 지지도 ($\beta = .12$), 취업동기 ($\beta = -.12$), 부인의 부모역할 ($\beta = .24$) 등이며 이는 분산의 34%를 설명하였다.

부언하면 취업주부의 교육수준이 낮으며 경제적 동기로 취업을 한 경우와 가계소득과 자원 적정인지도가 낮을수록, 또한 취업에 대해 부부 모두 호의적이며 가족원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기여도는 높게 나타났다.

동반자적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부의 의사소통도 ($\beta = .18$), 자원적정인지도 ($\beta = .12$), 부인의 배우자 역할 ($\beta = .14$), 부모역할 ($\beta = .13$), 경제역할 ($\beta = .14$)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사소통도와 자원적정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는 자원의 활용영역이 넓어지고 융통성과 다양한 관리 능력으로 배우자간의 정보교환 및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

을 증대시킴이 용이하며 또한 부인의 배우자 역할수행과 부모역할 및 경제 역할수행을 잘 할수록 동반자적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주부가 부부 및 부모 자녀관계에서 정서적 역할과 동반자적의 역할에 더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취업주부의 직업유형과 직업변인으로서 취업태도등이 주로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변인 중에서 성역할태도, 의사소통도, 자원적정 인지도등이 각 하위영 역별로 높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인의 경제 역할수행이 가정생활 기여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취업주부의 배경변인과 부부 역할수행 및 가정생활 기여도가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표4>와 같다.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beta = .10$), 의사소통도($\beta = .21$), 자원적정인지도($\beta = .14$), 가족원의 지지도($\beta = .18$), 직업만족도($\beta = .13$), 남편의 배우자 역할수행($\beta = .14$), 부인의 배우자 역할수행($\beta = .11$), 가사노동 기여도($\beta = -.17$), 자아·자녀관계 기여도($\beta = .12$)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의사소통도와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며, 또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취업주부의 의논상대가 되어주고 문제해결을 도와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관련 변인 중에서 가족원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주부의 취업에 대해 호의적이며 가사참여도가 높고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때 주부는 직장과 가정내 생활의 역할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만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남편과 가족원의 적극적인 조력과 참여가 요구되며 주부 자신 또한 취업으로 발생되는 이중 역할갈등 및 죄책감을 극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부의 역할수행에서 남편의 배우자 역할수행만이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의 애정과 친밀감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생활 기여도 중 가사노동 기여도가 낮을수록, 자아·자녀관계 기여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주부가 시간제약으로 가사노동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가사노동의 기여감이 낮게 나타난 반면에 가사조력자의 도움과 사회화된 상품대체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를 줄이고 가사노동 수행표준을 낮추는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가정생활 만족의 정도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취업주부는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자녀의 양육 및 관계 향상을 주부의 일차적 책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며 자녀와의 심리적,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친밀감이 형성되어 가정생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취업주부의 배경변인·부부 역할수행·가정생활 기여도 및 가정생활 만족도간의 인과관계

앞에서 살펴본 변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가정생활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인과관계는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가정생활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 의사소통도, 자원적정인지도, 직업만족도, 가족원의 지지도 등의 배경변인과 남편의 역할수행, 부인의 역할수행 그리고 가정생활 기여도 등이었다. 이를 변인들은 가정생활 만족도의 전체 변량의 59%를 설명하고 있다.

즉 취업주부들이 소득이 높고 가족간의 의사소통도와 자원적정 인지도가 높을수록 또한 가족원의 지지도와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 모두 남편의 역할수행과 부인의 역할수행 정도가 높을 때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히 가정생활의 기여도는 가정생활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에 학력은 남편의 역할수행과 가정생활 기여도를 경유한 간접효과가 있었고, 성역할태도는 부인의 역할수행과 가정생활 기여도를 경유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의사소통도는 남편의 역할수행, 부인의 역할수행, 가정생활 기여도를 경유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또한 가족원의 지지도는 남편의 역할수행, 부인의 역할수행, 가정생활 기여도를 경유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과효과는 <표5>에 요약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림2>의 인과모형을 도식화 하였다.

즉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역할수행의 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 만족도가 증대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기여도가 낮을 때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부의 가정내 역할수행이 가정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이 입증되었으며, 의사소통도와 자원적정인지도 역시 중요한 촉진변인으로서 가정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가정생활 기여도는 가정생활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취업주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영역에서 기여정도가 클 때 가정생활 만족이 낮게 나타났으며, 자아·자녀관계의 기여도가 클수록 가정생활 만족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취업주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직업관련 변인은 부부의 역할수행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 변인중 의사소통도, 자원적정인지도, 가족원의 지지도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개인 및 가족의 자원적정 인지도와 가족원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남편 및 부인의 역할수행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가족원간의 대화를 통하여 역할수행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부부의 역할공유를 통해서 각각의 역할에 대한 수행표준과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취업주부의 배경변인중 취업주부의 직업유형, 심리적 변인과 부인의 가정내 역할수행변인등이 가정생활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효율적인 가정생활 기여를 위해 가족원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향하며 가족원의 가사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취업주부는 항상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만이 아니라 취업소득을 통하여 가정경제·향상에 기여하는 소득원자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가족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정서적인 연대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다.

세째,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기여도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취업주부는 다중역할 수행을 하므로써 가정생활 기여도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지만 전반적인 가정생활 기여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피로와 시간제약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인 갈등 및 대체고용에 따른 경제적 지출 등의 이유에서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이 그다지 높게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가정내 역할수행은 가정생활 기여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취업주부의 역할수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다중 역할요구에 대하여는 가족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일부 해소시키고 취업주부로서 특별한 시간관리 방안과 가사노동 관리전략을 사용하여 바람직한 관리행동을 수행하고 가정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가족복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을 기초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부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부가 상황에 따라 변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직접 남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남편과 취업주부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비교 분석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기여도는 단순히 객관적인 측면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리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 주관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주부의 취업에 대한 남편 및 가족원의 정서적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남편 뿐만 아니라 부인도 슈퍼우먼 신드롬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할 것이며, 남편도 기대를 낮추어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 취업주부는 가정 및 직장생활을 보다 능동적으로 조화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이나 대중매체, 사회적 차원에서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취업주부의 자녀 육아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일제 턱아시설의 확충 및 질 향상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